

2011년 2분기 IT산업 리스크 분석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IT산업 수출입 현황 | 4 |
| II. 반도체 산업 동향 | 6 |
| 1. 세계시장 동향 및 수출 | 6 |
| 2. 전망 및 주요 이슈 | 9 |
| III. 디스플레이 산업 동향 | 12 |
| 1. 세계시장 동향 및 수출 | 12 |
| 2. 전망 및 주요 이슈 | 14 |
| IV. 휴대폰 산업 동향 | 17 |
| 1. 세계시장 동향 및 수출 | 17 |
| 2. 전망 및 주요 이슈 | 20 |

작성 : 책임연구원 김윤지 (3779-6677)
yzkim@koreaexim.go.kr
확인 : 실장 이해청 (3779-6670)
hcllee@koreaexim.go.kr

< 요약 >

□ 2분기 IT 수출, 전년동기 대비 3.9% 증가한 399억 달러

- 메모리반도체, 디스플레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, 휴대폰 수출 호조로 4개월 연속 130억 달러帶 수출을 달성
 - 휴대폰은 국내업체의 스마트폰 경쟁력 향상과 노키아 등 경쟁업체 실적 부진으로 전년동기 대비 두 자릿수 수출 증가
- 2분기 IT산업 무역흑자는 전년동기 대비 3.1% 하락한 193.8억 달러

□ 2분기 반도체 수출, 전년동기 대비 13.7% 감소한 125.5억 달러

- 메모리 반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D램(37.2억 달러, 전년동기 대비 26% 감소)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
- 2011년 세계 반도체 시장, 전년 대비 5.1% 성장으로 하향 수정
 - 메모리반도체는 세계 PC 시장 성장 둔화로 전년 대비 1.2%의 저성장이 예상되며,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D램은 12.4% 하락 전망

□ (이슈) 반도체 가격 하락세, 3분기에도 지속될 전망

- 하반기 D램 미세공정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급이 크게 늘고 있어 올해 내내 D램 가격은 약세를 보일 전망
 - 일본 대지진 여파에 따른 D램 가격 단기 상승효과도 사라지고, 경기 회복도 더딘데다 수요도 살아나지 않고 있어 3분기에도 D램 시장의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
- D램 가격의 하락세는 2012년이 되어야 둔화될 전망
 - 올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공정 전이에 따른 기술 이전이 완료되기 때문이며, 내년에 예상된 투자가 또 집행되면 2013년부터 단가 하락 속도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측

□ 2분기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, 전년동기 대비 7.5% 하락한 79.8억 달러

- 지난해 2분기의 86.3억 달러보다는 7.5% 하락, 전분기 75.2억 달러보다는 6.1% 증가
- 글로벌 소비 경기 위축으로 인한 수요 약세로 2011년 하반기 패널 가격은 완만한 하락 또는 횡보 상태를 유지할 전망

□ (이슈) 하반기 IT 수요가 회복되어도 LCD 회복은 더더질 전망

- 2011년 하반기 IT 수요를 이끌어갈 제품은 태블릿 PC, 스마트폰, 노트북 PC 등 모바일 PC 부문
 - 따라서 판매 대수로는 IT 수요 회복이 기대되지만, 디스플레이 측면에서는 사이즈가 작은 디바이스들의 판매만 증가하는 것이라 대형 LCD 공장 가동률에 의존하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회복은 더더질 것으로 보임.
- 특히 대형 LCD 공장들이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형 LCD 패널로 생산 전환을 할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용 패널의 판매 단가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.

□ 2분기 휴대폰 수출, 전년동기 대비 29.3% 증가한 69.8억 달러

- 스마트폰 수출이 32.9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29% 증가하며 휴대폰 수출 증가를 견인
- '08년 이후 글로벌 브랜드 제고,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생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, '11.1분기 이후 해외 생산 비중 증가세 둔화
 - ※ 휴대폰 해외 생산 비중(%) : ('07) 34.9→('08) 45→('09) 58.2→('10) 64.2→('11.1Q) 63.1
- 2011년 글로벌 휴대폰 시장, 전년 대비 13.7% 성장으로 상향 조정
 - 견조한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글로벌 시장 성장의 핵심으로 부상할 전망

□ (이슈) 휴대폰 특허 소송, 선두권 기업들의 입지 다지기로 이어질 전망

- 최근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,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휴대폰 기업에 대한 특허료 청구 및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
- 특허 공방은 사실상 크로스 라이선싱을 통한 선두권 기업들의 입지 다지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.
 -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의 경우, 삼성전자가 통신기술에는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, 크로스 라이선싱을 통해 선두권 업체들끼리의 연대를 공고히 함으로써 후발 기업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음.
 - 과거 LCD 산업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며, 이럴 경우 선두권 업체인 삼성전자 등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으나, 팬택 등 후발기업들의 추격은 더 힘들어 질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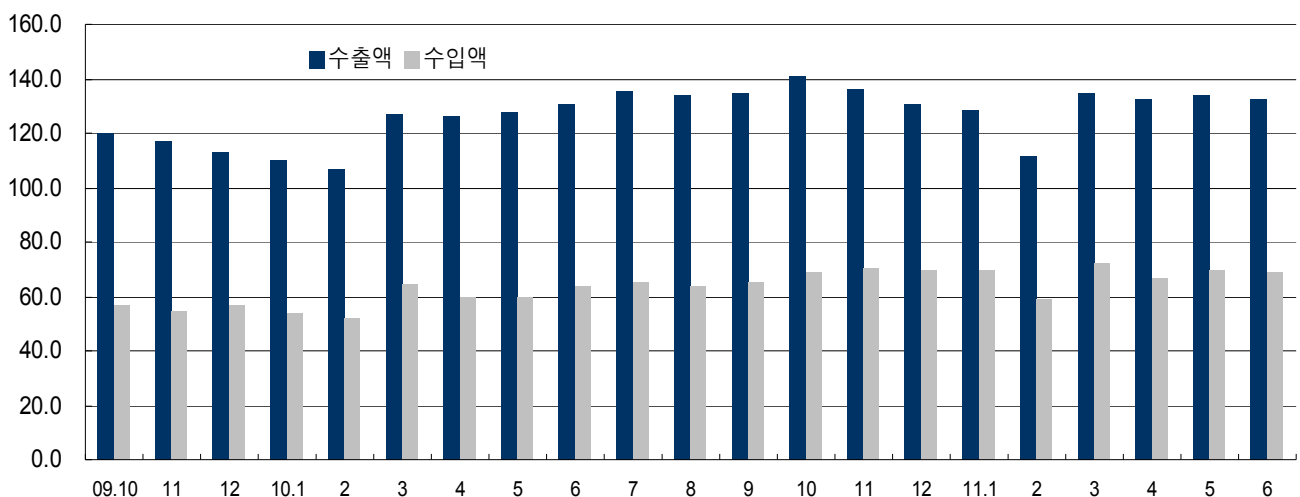
I. IT산업 수출입 현황

□ 2분기 IT 수출, 전년동기 대비 3.9% 증가한 399억 달러

- 2011년 2분기 IT 수출은 지난 해 2분기 384억 달러보다 15억 달러 많은 399억 달러 기록
 - 상반기 수출액은 773.7억 달러로 상반기 기준 최대 수치이나, 지난 해 큰 폭의 수출증가에 대한 기저효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음.
- * 증가율: '10년 2분기 31.3% → 3분기 21.3% → 4분기 16.3% → '11년 1분기 8.9% → 2분기 3.9%
- 메모리반도체, 디스플레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, 휴대폰 수출 호조로 4개월 연속 130억 달러帶 수출을 달성
 - 휴대폰은 국내업체의 스마트폰 경쟁력 향상과 노키아 등 경쟁업체 실적 부진으로 전년동기 대비 두 자릿수 수출 증가
- * 휴대폰 수출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: '10년 1월 11.9% → 2월 5.6% → 3월 5.8% → 4월 31.9% → 5월 38.9% → 6월 17.9%
 - 반도체는 메모리 수출 부진으로 3개월 연속 감소
 - 디스플레이 패널은 TV, 모니터 등 전방 산업의 판매 부진과 단가 하락으로 5개월 연속 감소
- 2분기 IT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2.4% 증가한 205.2억 달러 기록
 - 스마트폰, 태블릿PC 등 최신 IT품목 수입 증가 영향

IT산업 월별 수출입 추이

(단위: 억 달러)



자료: 지식경제부

IT산업 분기별 수출입 및 수지 추이

(단위: 억 달러, 전년동기 대비 %)

| 구 분 | | 수 출 | | | 수 입 | | | 무역수지 | |
|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| | 전체산업 | IT산업 | 증감률 | 전체산업 | IT산업 | 증감률 | 전체 산업 | IT 산업 |
| | | | | | | | | | |
| 2009년 | 1분기 | 744.2 | 233.7 | -30.1 | 714.2 | 127.1 | -33.2 | 30.0 | 106.6 |
| | 2분기 | 903.6 | 292.5 | -16.2 | 739.7 | 153.7 | -21.4 | 163.9 | 138.8 |
| | 3분기 | 947.8 | 332.9 | -6.9 | 848.5 | 170.7 | -13.3 | 99.4 | 162.2 |
| | 4분기 | 1039.7 | 350.4 | 29.5 | 928.5 | 168.6 | 10.7 | 111.2 | 181.8 |
| | 연간 | 3635.3 | 1209.5 | -7.8 | 3230.9 | 620.1 | -15.6 | 404.5 | 589.4 |
| 2010년 | 1분기 | 1010.9 | 344.1 | 47.2 | 981.3 | 170.3 | 34.0 | 29.6 | 173.8 |
| | 2분기 | 1202.5 | 384.0 | 31.3 | 1057.4 | 183.9 | 19.6 | 145.1 | 200.1 |
| | 3분기 | 1171.2 | 403.9 | 21.3 | 1056.9 | 194.8 | 14.1 | 114.3 | 209.2 |
| | 4분기 | 1289.5 | 407.5 | 16.3 | 1161.2 | 208.7 | 23.8 | 128.3 | 198.9 |
| | 연간 | 4674.1 | 1539.5 | 27.3 | 4256.8 | 757.7 | 22.2 | 417.3 | 782.0 |
| 2011년 | 1분기 | 1,310.1 | 374.7 | 8.9 | 1,236.2 | 200.6 | 17.8 | 73.9 | 174.1 |
| | 2분기 | 1,443.3 | 399.0 | 3.9 | 1,343.6 | 205.2 | 12.4 | 99.7 | 193.8 |

자료: 지식경제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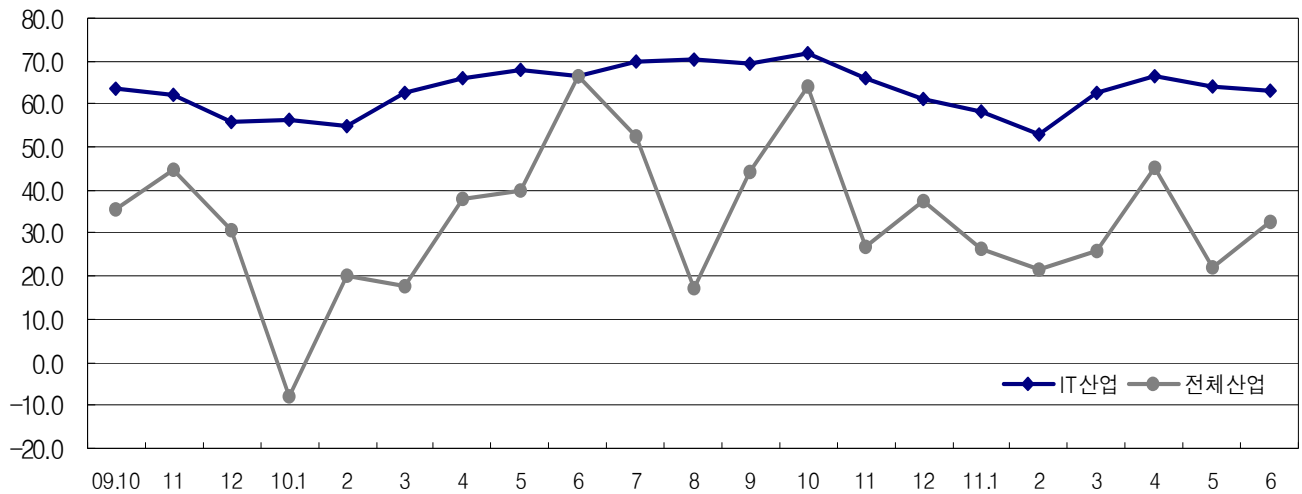
- 향후 세계 IT시장은 불안정한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, 스마트폰,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 성장에 힘입어 7% 대 성장이 예상
- 이에 따라 스마트 제품 및 스마트 제품의 핵심부품인 시스템반도체, 낸드플래시, 리튬 2차전지 등을 중심으로 IT수출은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
- 다만,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, 유가 상승, 글로벌 부품 수급 불일치 등은 수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.

□ 2분기 IT산업 무역 흑자 전년동기 대비 3.1% 하락한 193.8억 달러

- 2분기 IT산업 무역흑자는 193.8억 달러로 전체 산업 무역흑자 99.7억 달러의 두 배 수준 기록
- 그러나 전년동기 대비 무역흑자 증가율은 '10년 1분기 63% → 2분기 44.2% → 3분기 29.0% → 4분기 9.4% → '11년 1분기 0.2% → 2분기 △3.1%로 증가율이 점차 줄어들다 2분기에 들어서는 하락 반전

IT산업 월별 무역수지 추이

(단위: 억 달러)



자료: 지식경제부

II. 반도체 산업 동향

1. 세계시장 동향 및 수출

□ 2분기 세계 D램 반도체 매출, 전분기 대비 1.9% 감소한 81.9억 달러

- 시장조사기관 D램 익스체인지에 의하면 2분기 D램 반도체 매출 규모는 81.9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1.9% 감소
 - D램 평균 판매가격은 1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, ProMOS와 Power chip 등이 공급량을 줄이면서 전체 매출은 감소
 - 일본 대지진 여파로 공급이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DDR3 2Gb 제품의 고정거래가격은 1분기 대비 10% 정도 상승했지만, 현물가격이 이보다 10%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면서 전체 매출에는 변화를 주지 못함.
 - D램 기업들이 대부분 공정 전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나, 아직 수출이 안정화되지 못해 현물 가격은 하락
 - 2분기 D램 평균 가격이 상승한 것은 PC 업체들의 D램 재고비축에 의한 효과로, 수요 증대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보기는 어려움.

세계 D램 시장 점유율

(단위 : 백만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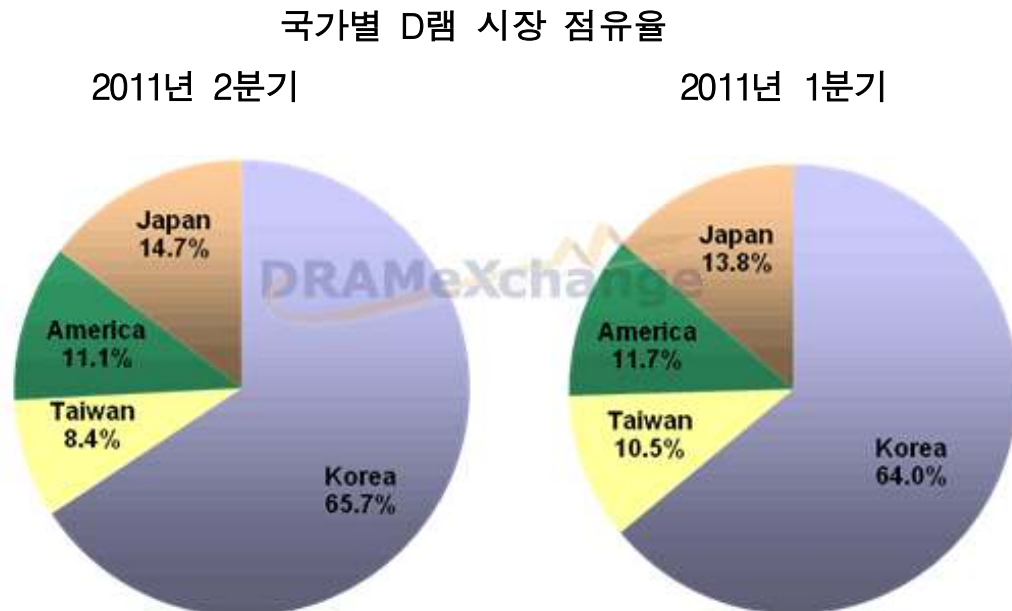
| 순위 | 회사명 | 매출액 | | | 시장점유율 | |
|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| | 2Q11 | 1Q11 | QoQ | 2Q11 | 1Q11 |
| 1 | 삼성전자 | 3,373 | 3,306 | 2.0% | 41.4% | 39.9% |
| 2 | 하이닉스 | 1,860 | 1,898 | -2.0% | 22.8% | 22.9% |
| 3 | Elpida | 1,174 | 1,120 | 4.8% | 14.4% | 13.5% |
| 4 | Micron | 883 | 950 | -7.1% | 10.8% | 11.4% |
| 5 | Nanya | 386 | 352 | 9.7% | 4.7% | 4.2% |
| 6 | Winbond | 162 | 159 | 2.1% | 2.0% | 1.9% |
| 7 | ProMos | 103 | 137 | -24.5% | 1.3% | 1.6% |
| 8 | Power chip | 21 | 209 | -89.8% | 0.3% | 2.5% |
| | 기타 | 185 | 172 | 8.0% | 2.3% | 2.1% |
| | 총합 | 8,147 | 8,301 | -1.9% | 100.0% | 100.0% |

자료: DRAmExchange, 2011년 8월

- 대부분의 D램 업체들이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 업체들은 양호한 실적을 거둠.
 - 삼성전자는 시장점유율을 40% 이상 차지하면서 1위를 유지. 매출액도 전분기보다 2% 상승
- 삼성전자의 경우 35나노 D램으로의 공정 전이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생산량도 늘어난 데다, 다른 기업들과 달리 공정 전이에 따른 품질 저하도 심각하지 않아 반도체 가격 하락 속에서도 매출 증가를 실현.
 -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모두 모바일 D램과 서버용 D램을 늘려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 D램 가격 하락의 폭풍 속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.
- 올 상반기 일본의 Elpida가 대만업체인 Power chip의 D램 공장을 인수하면서 6월부터 Power chip의 D램 생산부문은 Elpida의 파운드리로 편입
 - 이에 따라 Power chip의 2분기 D램 생산량은 Elpida 매출로 집계됨.
 - 올 하반기부터 Power chip은 D램 시장에서는 모두 철수하고, 비 D램 제품 OEM업체로 변신할 계획임.
-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이 41.4%로 40%를 넘어서고, 하이닉스가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22.8%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면서 한국

기업들의 D램 시장점유율은 65.7%로 증가함.

- 전 분기의 64%에서 소폭 상승한 결과로, 시장 환경이 악화될수록 강한 기업들의 입지가 더욱 강해지는 현상을 보여줌.



자료: DRAmExchange, 2011년 8월

□ **2분기 반도체 수출, 전년동기 대비 13.7% 감소한 125.5억 달러 기록**

- 2분기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 129.5억 달러보다 3.1% 하락한 125.5억 달러 수출
 - 전체 메모리 반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D램(37.2억 달러, 전년동기 대비26% 감소) 수출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 기록
 - 낸드플래시(8.5억 달러, 전년동기 대비 16.4% 증가)는 최근 단가하락으로 성장률이 정체되었으나 성장 기조는 지속
 - 시스템반도체는 모바일 AP, 시스템반도체 MCP 등 수출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12.5% 증가한 43.2억 달러 기록

반도체 수출 추이

(단위 : 억 달러, % : 전년동기 대비)

| 구분 | 반도체 | | | | | | | | |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|-------|------|------|
| | 반도체 | | 메모리 | | | | D램 | | 낸드 | |
| | 억달러 | % | 억달러 | % | 억달러 | % | 억달러 | % | 억달러 | % |
| '10.1 | 33.0 | 120.6 | 19.6 | 171.8 | 13.8 | 215.1 | 2.1 | 110.0 | 10.1 | 52.8 |
| 2 | 33.5 | 117.9 | 19.3 | 144.6 | 13.0 | 195.9 | 2.1 | 92.5 | 10.5 | 73.0 |
| 3 | 40.4 | 123.0 | 22.8 | 163.9 | 15.1 | 204.1 | 2.4 | 81.9 | 12.4 | 61.5 |
| 1분기 | 106.9 | 120.4 | 61.7 | 159.2 | 41.9 | 203.6 | 6.6 | 94.1 | 33.0 | 62.1 |
| 4 | 41.8 | 97.6 | 24.6 | 150.1 | 16.0 | 201.3 | 2.5 | 77.9 | 12.3 | 30.8 |
| 5 | 43.9 | 82.6 | 26.1 | 127.5 | 17.6 | 179.1 | 2.4 | 40.2 | 12.9 | 22.9 |
| 6 | 43.8 | 74.2 | 25.3 | 103.2 | 16.7 | 141.8 | 2.4 | 48.6 | 13.2 | 27.0 |
| 2분기 | 129.5 | 84.5 | 76.0 | 125.5 | 50.3 | 171.9 | 7.3 | 55.3 | 38.4 | 26.8 |
| 7 | 46.2 | 70.8 | 26.4 | 98.5 | 17.8 | 119.6 | 2.4 | 53.4 | 14.1 | 24.3 |
| 8 | 47.4 | 64.9 | 27.9 | 90.4 | 18.8 | 116.9 | 2.5 | 26.9 | 14.2 | 23.6 |
| 9 | 47.7 | 48.6 | 26.6 | 65.8 | 17.5 | 86.9 | 2.2 | 4.3 | 15.3 | 18.4 |
| 3분기 | 141.3 | 60.8 | 80.9 | 83.9 | 54.1 | 107.3 | 7.1 | 24.6 | 43.6 | 21.9 |
| 10 | 45.6 | 32.8 | 24.5 | 37.6 | 16.4 | 56.1 | 2.1 | △8.9 | 15.1 | 15.1 |
| 11 | 41.3 | 18.1 | 20.3 | 4.4 | 12.7 | 2.9 | 2.2 | 11.0 | 15.6 | 25.9 |
| 12 | 42.5 | 23.5 | 21.4 | 7.2 | 12.6 | △8.9 | 2.5 | 39.9 | 15.4 | 38.5 |
| 4분기 | 129.4 | 24.8 | 66.2 | 15.7 | 41.7 | 13.6 | 6.8 | 9.7 | 46.1 | 25.9 |
| '11.1 | 40.9 | 23.9 | 21.8 | 11.3 | 11.5 | △16.2 | 2.5 | 20.8 | 13.8 | 36.9 |
| 2 | 36.5 | 9.2 | 18.8 | △2.8 | 11 | △14.7 | 2.2 | 8.3 | 12.2 | 16.4 |
| 3 | 44.7 | 10.6 | 23.4 | 2.6 | 12.8 | △14.8 | 2.7 | 10.9 | 15.1 | 22.2 |
| 1분기 | 122.1 | 14.2 | 64.0 | 3.7 | 35.3 | △15.8 | 7.4 | 12.1 | 41.1 | 24.5 |
| 4 | 41.6 | △0.4 | 22.2 | △9.6 | 12.5 | △22.2 | 2.9 | 13.9 | 13.7 | 11.5 |
| 5 | 41.8 | △4.7 | 22.1 | △15.3 | 12.5 | △28.7 | 3.2 | 34.7 | 14.3 | 10.8 |
| 6 | 42.1 | △3.9 | 21.3 | △15.8 | 12.2 | △27.0 | 2.4 | 1.1 | 15.2 | 14.8 |
| 2분기 | 125.5 | △3.1 | 65.6 | △13.7 | 37.2 | △26.0 | 8.5 | 16.4 | 43.2 | 12.5 |

자료: 지식경제부

주: 메모리반도체에 메모리 MCP 포함

2. 전망 및 주요 이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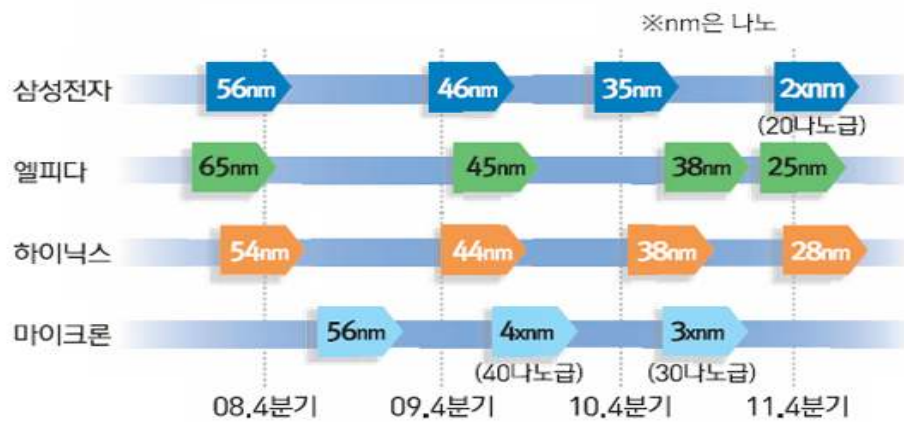
□ '11년 세계 반도체 시장, 전년 대비 5.1% 성장으로 하향 수정

- Gartner 등 시장조사기관은 2011년 반도체 세계 시장 성장률을 전년 대비 5.1% 성장할 것으로 하향 수정
- 지난 일본 대지진 여파로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전년 대비 4.6% 성장에서 6.2% 성장으로 상향 조정했으나, 일본 대지진 이후로도 시장 회복이

늦어지자 다시 5.1% 성장으로 하향 조정

- 특히 메모리반도체는 세계 PC 시장 성장 둔화로 전년 대비 1.2%의 저성장이 예상되며,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D램은 12.4%의 감소 전망
- 하반기 D램 미세공정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급이 크게 늘고 있어 올해 내내 D램 가격은 약세를 보일 전망
- 과거 가격 하락 시기는 증산을 통한 치킨게임 양상이었다면, 지금은 공정 전이 및 기술 개발을 통한 원가 낮추기로 경쟁 양상이 변화된 상황


메모리 업체별 공정 전환 시기



자료: 서울경제, 2011, 7.

- 업체는 공정 전이와 함께 나타나는 수율 저하를 끌어올리는 것이 곧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공정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.
- 한국 기업들의 경우 경쟁업체보다 공정 전이 속도 및 품질에서 앞선다는 평가

하반기 국내 업체의 반도체 시장 대응 전략

| 업체 | 하반기 대응 전략 |
|---|--|
|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메모리반도체 사업에서 3분기에 미세공정 전환을 가속화해 업계 최고 수준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품 차별화를 통한 수익성 확보 ○ 시스템LSI 사업에서 고성능 모바일기기 수요 호조에 따라 듀얼코어 AP와 이미지센서 등 고부가 제품 매출 비중을 확대하고,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신규 거래처를 지속 확대할 예정 <p>※ 삼성전자는 올해 메모리반도체 5조 8,000억 원, 시스템반도체 4조 2,000억 원 등을 합해 총 10조 3,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</p> |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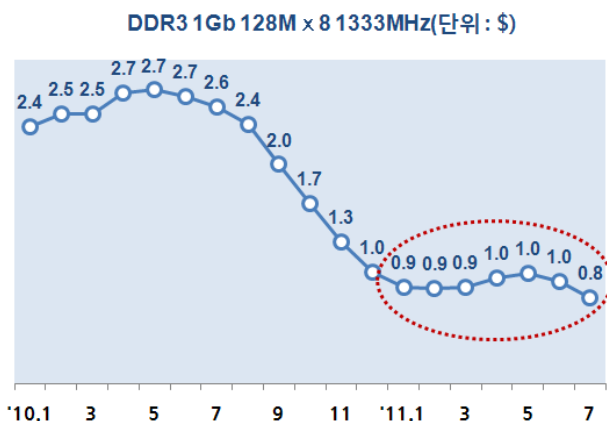
- '11.1Q 생산을 시작한 30나노급 D램 제품 비중을 연말까지 40% 수준으로 확대하고, 2분기 말 기준 70% 수준인 모바일·그래픽·서버용 D램 등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도 계속 유지
- 낸드플래시 공정전환을 가속화해 2분기 말 현재 50% 수준인 20나노급 비중을 연말까지 70% 중반까지 확대하고, 차세대 20나노 제품도 하반기 양산을 시작

자료: NIPA, 지식경제부(8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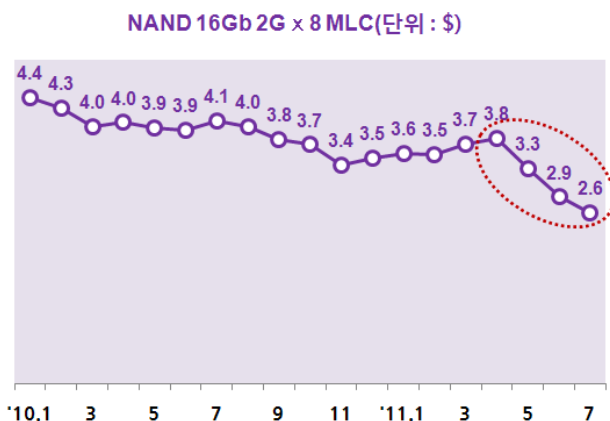
□ 반도체 가격 하락세, 3분기에도 지속될 전망

-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은 2분기 소폭 상승 뒤 7월 들어 하락세 지속
 - 7월 평균 D램 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68.9%, 전월 대비 16.3% 하락한 0.8달러를 기록
 - D램 가격 하락은 북미·유럽지역에서의 PC 판매 부진과 이에 따른 재고 증가가 가장 큰 원인
 - 낸드플래시 7월 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35.0%, 전월 대비 약 8.4% 하락한 2.6달러를 기록, '11.4월 이후 가파른 하락세 시현
 - 낸드플래시의 최대 수요처인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해지면서 제조사들의 재고량이 늘어난 것이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

D램 가격 추이



낸드플래시 가격 추이



자료: DRAMeXchange

- D램 익스체인지 등 시장조사기관들은 D램 산업의 공급과잉과 그에 따른 가격 인하가 3분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

- 일본 대지진 여파에 따른 D램 가격 단기 상승효과도 사라지고, 경기 회복도 더딘데다 수요도 살아나지 않고 있어 3분기에도 D램 시장의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
- 대만 업체 등 하위 업체의 감산이 임박함에 따라 4분기를 전후해 가격 안정화 기대
- 한편, 아이서플라이는 **D램 가격의 하락세가 내년에는 둔화될** 것으로 전망
 - 1분기 D램 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14.2% 하락했지만, 2분기에는 하락폭이 12%, 3분기에는 9%, 4분기에는 4%까지 하락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
 - 내년 1분기에는 하락폭이 1%대로 되면서 내년 말까지 이 수준이 지속돼 평균 가격 하락폭은 3~4%대에 머물 것으로 분석
 - 가격 하락폭이 둔화되는 것은 제조 공정에서 기술 이전이 더뎠고 있기 때문으로, 내년에 투자금액이 23% 늘게 되면 2013년부터는 단가 하락 속도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

III. 디스플레이 산업 동향

1. 세계시장 동향 및 수출

□ 2분기 LCD패널,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6% 증가매출액은 16% 감소

- 시장조사기관 DisplaySearch 자료에 의하면, 2011년 2분기 대형 TFT-LCD 패널 출하량은 총 1억8,080만대로 전년동기 대비 6%, 전분기 대비로는 11% 증가
- 매출액은 193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% 하락, 전분기 대비로는 11% 증가
- 애플리케이션별로는 태블릿 PC용 패널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88%, 전년동기 대비 386%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임.
- 모니터와 노트북 PC용 패널 출하량은 각각 전분기 대비 3%, 11% 증가했지만, 전년동기 대비로는 모두 동일한 수준이었고, TV 패널은 전년동기 대비 4% 하락함.

애플리케이션별 대형 TFT LCD 패널 출하량

단위: 백만대

| Application | 출하량 | | | 성장률 |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| Q2'10 | Q1'11 | Q2'11 | 전분기대비 | 전년동기대비 |
| LCD 모니터 | 50.9 | 49.4 | 51 | 3% | 0% |
| 노트북 PC | 48.9 | 44 | 48.9 | 11% | 0% |
| 소형 노트북 | 9.1 | 8.7 | 9.2 | 5% | 1% |
| 태블릿 | 3.2 | 8.3 | 15.6 | 88% | 386% |
| LCD TV | 55 | 49.4 | 52.7 | 7% | -4% |
| 공공 디스플레이 | 0.4 | 0.5 | 0.7 | 42% | 54% |
| 기타 | 2.7 | 2.8 | 2.8 | 1% | 5% |
| 합계 | 170.2 | 163.1 | 180.8 | 11% | 6% |

자료: DisplaySearch

- 매출액 기준으로도 태블릿 PC용 패널이 전분기 대비 64%, 전년동기 대비 259% 증가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임.
- 그러나 태블릿 PC와 공공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모니터와 노트북 PC, TV용 패널은 전년동기 대비 모두 감소를 나타냄.

애플리케이션별 대형 TFT LCD 패널 매출액

단위: 십억 달러

| Application | 매출액 | | | 성장률 |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| Q2'10 | Q1'11 | Q2'11 | 전분기대비 | 전년동기대비 |
| LCD 모니터 | 4.50 | 3.50 | 3.80 | 7% | -16% |
| 노트북 PC | 3.00 | 2.10 | 2.30 | 13% | -22% |
| 소형 노트북 | 0.30 | 0.30 | 0.30 | 5% | -1% |
| 태블릿 | 0.30 | 0.60 | 0.90 | 64% | 259% |
| LCD TV | 14.30 | 10.50 | 11.40 | 8% | -20% |
| 공공 디스플레이 | 0.20 | 0.20 | 0.20 | 28% | 20% |
| 기타 | 0.30 | 0.30 | 0.30 | 1% | -1% |
| 합계 | 22.90 | 17.40 | 19.30 | 11% | -16% |

자료: DisplaySearch

□ 2분기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, 전년동기 대비 7.5% 하락한 79.8억 달러 기록¹⁾

- 2분기 패널 수출은 79.8억 달러로 지난해 2분기의 86.3억 달러보다는 7.5% 하락, 전분기 75.2억 달러보다는 6.1% 증가

1) 부분품 포함 수치

- 패널 가격의 안정세 돌입에도 불구하고 서유럽 등의 경기 불안 지속, '10년 수출 기저 효과 등의 영향
- o 중국(홍콩포함)은 3D·LED 패널 등을 중심으로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, 경기 회복 지연 중인 EU와 유럽 지역 생산 거점인 동유럽 및 북미 지역의 생산 거점인 중남미의 수출은 감소
- 수출 비중은 매우 낮지만, 인도와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

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

(단위 : 억 달러, % : 전년동기 대비)

| | '10.1 | 2 | 3 | 4 | 5 | 6 | 7 | 8 | 9 | 10 | 11 | 12 | '11.1 | 2 | 3 | 4 | 5 | 6 |
|-----|----------|----|----|------|----|----|------|----|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금액 | 25 | 23 | 28 | 28 | 29 | 29 | 32 | 32 | 29 | 29 | 27 | 27 | 25.6 | 22.6 | 27 | 26.3 | 27.1 | 26.4 |
| 증감률 | 100 | 56 | 46 | 40 | 38 | 28 | 28 | 25 | 8.9 | 8.7 | 9.5 | 0.8 | 4.0 | △3.2 | △4.8 | △7.3 | △6.8 | △8.2 |
| | '10. 1분기 | | | 2분기 | | | 3분기 | | | 4분기 | | | '11. 1분기 | | | 2분기 | | |
| 금액 | 76.3 | | | 86.3 | | | 92.4 | | | 82.7 | | | 75.2 | | | 79.8 | | |
| 증감률 | 63.0 | | | 35.5 | | | 20.3 | | | 6.3 | | | △1.4 | | | △7.5 | | |

자료: 지식경제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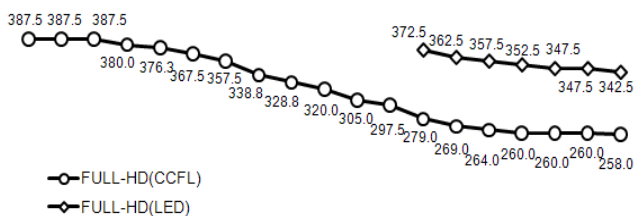
주: 부분품 포함

2. 전망 및 주요 이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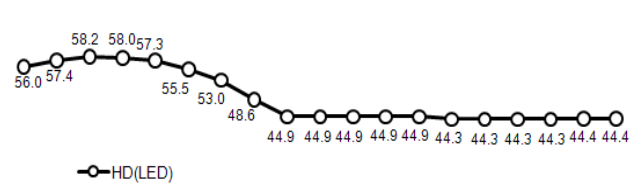
□ 하반기 패널 가격,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 턴어라운드는 어려울 전망

- o '11년 6월 보합세를 보였던 LCD TV 패널 가격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생산량 증가, 선진 시장 수요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7월 재하락
- 다만, 태블릿PC 등 신규 시장 확대 등으로 노트북 패널 가격 등은 보합세 유지

LCD TV 패널-Full HD



노트북 패널-LED



자료: Witsview, 2011.7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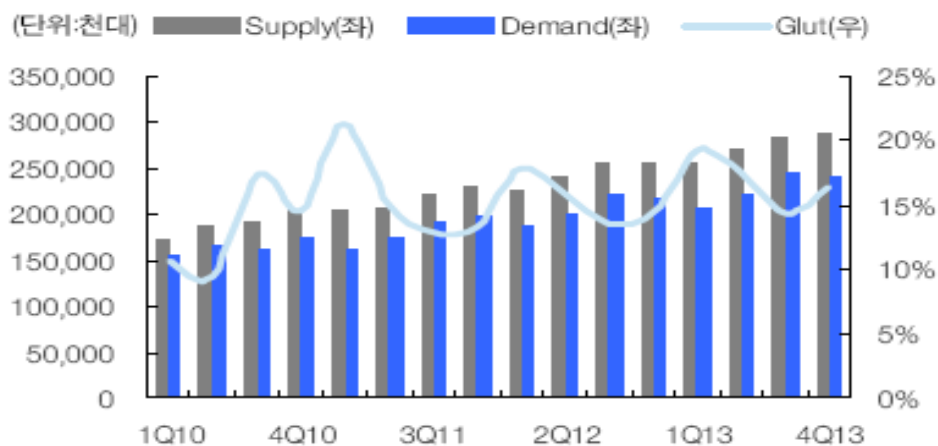
주: LCD TV 패널(32인치~47인치) 평균, 노트북 패널(10.1인치~17.3인치) 평균

- 계절적 비수기, 선진 시장 경기 회복 둔화, 공급 과잉 등 시장 회복에 부정적 요인들의 영향으로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실적 부진은 여전
 - 하반기 계절적 성수기 대비 세트 업체들의 패널 재고 축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, 세트업체들이 보수적인 재고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실적 개선에는 부정적
 - 디스플레이 선두 그룹인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LED TV 패널 등 고부가가치 제품과 태블릿PC 패널 등 신제품 적용 패널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, 미국·유럽 등 선진 TV 시장의 수요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디스플레이 시장 실적 개선은 다소 더디게 진행 중
- 국내외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감산, 투자 축소 등 수급 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 안정화 노력 중
 - LG디스플레이, CMI(대만) 등은 가동률 조정과 함께 '11년 설비 투자 규모를 당초보다 20~30% 감소함으로써 공급과잉 완화 중

□ 하반기 IT 수요가 회복되어도 소형 디바이스 중심이어서 LCD 회복은 더디질 전망

- 7월말 기준 주요 패널 업체들의 평균 가동률은 약 70% 후반~ 80% 초반으로 패널 수급상 공급은 안정적인 기조
- 그러나 글로벌 소비 경기 위축으로 인한 수요 약세로 2011년 하반기 패널 가격은 완만한 하락 또는 횡보 상태를 유지할 전망

LCD 패널 수요 공급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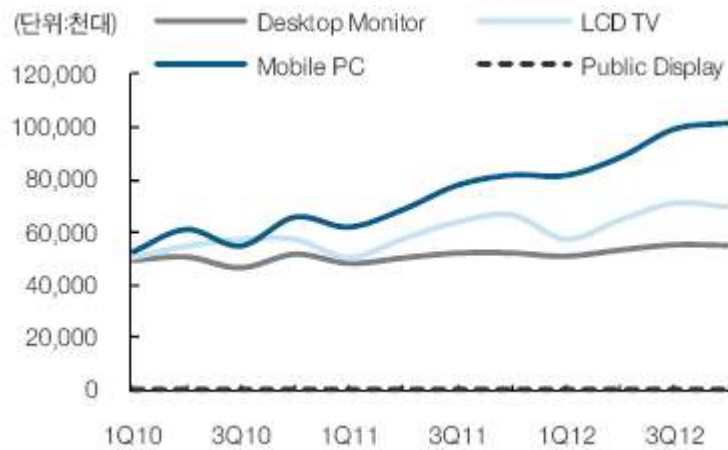
자료 : DisplaySearch

- 2011년 하반기 IT 수요를 이끌어갈 제품은 태블릿 PC, 스마트폰, 노트북 PC 등 모바일 PC 부문

- 따라서 판매 대수로는 하반기에 상당한 IT 수요 회복이 기대되지만, 디스플레이 측면에서는 **사이즈가 작은 디바이스들의 판매만 증가하는 것이라 대형 LCD 공장 가동률은 크게 높이기 어려울 전망**

※ LCD 제조 공정은 대형 LCD 패널을 제작해 애플리케이션에 맞춰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 형태라 **대면적 패널의 수요가 느는 것이 중요함**. 소형 패널은 전체 판매량이 늘어도 전체 생산량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.

애플리케이션별 패널 판매 전망



자료 : DisplaySearch

- 디스플레이 산업은 전통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판매가 집중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, 올해에는 하반기에도 TV와 데스크탑 모니터는 부진한 수요를 보일 전망
- 이에 따라 중소형 LCD 공장은 100% 가동률을 기록하겠지만, 대형 LCD 공장들은 선두업체도 풀가동을 하기 어려울 전망
- 특히 대형 LCD 공장들이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형 LCD 패널로 생산 전환을 할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용 패널의 판매 단가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.

IV. 휴대폰 산업 동향

1. 세계시장 동향 및 수출

□ 2분기 세계 휴대폰 시장, 전년동기 대비 11.3% 성장

- IDC에 의하면 2011년 2분기 세계 휴대폰 출하량은 3억 6,540만대로 2010년 2분기 3억 2,840만대에 비해 11.3% 성장
 - IDC의 시장 성장 예상치였던 13.3%를 하회하는 수준이며, 전 분기의 3억 7,180만대 출하량보다도 1.7% 하락
- 시장 성장이 예상보다 부진한 이유는 2009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출하량이 줄어든 피쳐폰의 영향으로, 피쳐폰 출하량은 2010년 2분기에 비해 4% 줄어듦.
 - 피쳐폰 감소세는 미국, 일본, 서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 두드러짐. 스마트폰의 빠른 확산 영향.
- 피쳐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장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스마트폰의 가파른 성장 덕분

2011년 2분기 세계 휴대폰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

(단위: 백만 대, %)

| 순위 | 공급 업체 | 2Q 2011 | | 2Q 2010 | | 전년동기비 증감 |
|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
| | | 출하량 | 시장점유율 | 출하량 | 시장점유율 | |
| 1 | 노키아 | 88.5 | 24.2% | 111.1 | 33.8% | -20.3% |
| 2 | 삼성전자 | 70.2 | 19.2% | 63.8 | 19.4% | 10.0% |
| 3 | LG전자 | 24.8 | 6.8% | 30.6 | 9.3% | -18.9% |
| 4 | 애플 | 20.3 | 5.6% | 8.4 | 2.6% | 141.8% |
| 5 | ZTE | 16.6 | 4.5% | 12.2 | 3.7% | 36.0% |
| 6 | 기타 | 145 | 39.7% | 102.3 | 31.2% | 41.7% |
| 합계 | | 365.4 | 100.0% | 328.4 | 100.00% | 11.3% |

자료: IDC, 2011년 7월

- 중국시장에서는 아이폰4의 영향으로 애플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으며,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CSL(홍콩), Nexian(인도네시아), Q-Mobile(베트남), Wellcom(태국)과 같은 자국 업체들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통해 판매량을 늘림.
- 인도와 동남아지역의 저가폰 시장에서는 중국 제품의 확산이 두드러졌

으며, CEMA(Central and Eastern Europe, Middle East and Africa)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중국 제품들의 잠식이 계속 진행됨.

- 스마트폰의 핵심 성장 지역인 북미 시장 외에 중남미 시장도 소셜 네트워크를 위한 저가 스마트폰에 의해 시장이 크게 성장
- 노키아는 점유율 1위를 유지하기는 했으나, 출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.3% 감소하면서 시장점유율이 24.2%로 하락
 - 전통적으로 노키아의 텃밭이었던 중국과 유럽에서 고전하면서 점유율이 크게 줄었으며, 연내에 윈도우폰 7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출시되어야 점유율 회복 여부가 결정될 전망
- 삼성전자는 갤럭시S2 등 안드로이드폰 호조로 출하량을 전년동기 대비 10% 증가시키며 점유율 19.2%로 1위 노키아와의 격차를 줄임.
 - LG전자도 옵티머스 스마트폰 덕분에 시장점유율 3위를 지키기는 했으나, 피쳐폰 시장규모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스마트폰 판매 속도는 빠르지 않아 애플에게 3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음.
- 애플은 출시한 지 1년이 넘어가는 아이폰4로 전년동기 대비 141.8%의 증가율을 보이며 점유율 4위를 유지.
 - 중국의 ZTE 역시 피쳐폰 외에 블레이드, 레이서, 리브라, 스케이트, 아밍고 등 다양한 안드로이드폰을 내놓으면서 출하량을 전년동기 대비 36% 늘림.

□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, 전년동기 대비 76.3% 성장

- Strategy Analytics에 의하면 2011년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1억 1,000만대로 전년동기 대비 76.3% 성장
 - 새로 판매되는 휴대폰 3대 가운데 1대는 스마트폰이라는 수치
-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이 2,030만대를 판매하며 시장점유율 18.3%로 1위를 유지
- 삼성전자는 출하량 1,920만대로 전년동기 대비 519.1% 성장하면서 전체 시장 점유율도 17.5%로 올라 애플을 바짝 추격
- 삼성전자, LG전자, 팬택 등 국내 업체의 출하량은 모두 2,540만대로 시장점유율 23.1%를 차지하며 국가별로는 1위에 오름.

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

단위 : 백만 대, %

| 순위 | 공급업체 | '11.1Q | | '11.2Q | |
|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| | 출하량 | 증감률 | 출하량 | 증감률 |
| 1 | Apple | 18.6 | 111.4% | 20.3 | 141.7% |
| 2 | 삼성전자 | 12.6 | 366.7% | 19.2 | 519.4% |
| 3 | Nokia | 24.2 | 12.6% | 16.7 | -29.8% |
| 4 | RIM | 13.8 | 30.2% | 12.5 | 11.6% |
| 5 | HTC | 9.6 | 220.0% | 12.1 | 132.7% |
| 6 | LG전자 | 4.1 | 1,266.7% | 6.2 | 588.9% |
| 전체 | | 103.0 | 85.9% | 110.0 | 76.3% |
| 국내 업체* | | 16.7 | 456.7% | 25.4 | 535.0% |
| 세계시장점유율 | | 16.2% | (3위) | 23.1% | (1위) |

자료 : SA 2011.7

주*: 국내업체의 세계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, LG전자, 팬택(추정치)의 출하량 합산

□ 2분기 휴대폰 수출, 전년동기 대비 29.3% 증가한 69.8억 달러 기록²⁾

- 2분기 휴대폰 수출은 69.8억 달러로 지난해 2분기의 54억 달러보다 29.3% 증가
 - 전 분기 65.3억 달러보다는 7% 증가
 - 스마트폰 수출이 32.9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29% 증가하며 휴대폰 수출 증가를 견인
 - 피쳐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5.6% 감소했으나, 스마트폰은 329%, 부분품은 14.4% 증가하며 휴대폰 수출을 주도
 - 스마트폰 등 하이엔드 제품 중심의 수출 포트폴리오 개선이 단가 개선 및 수출 증가에 기여
- ※ 휴대폰 수출단가 추이() : ('09) 212.5→('10.상) 185.4→(하) 225.7→('11.1~6월) 296.7
- '08년 이후 제품 현지화에 따른 글로벌 브랜드 제고,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생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, '11.1분기 이후 해외 생산 비중 증가세 둔화
- ※ 휴대폰 해외 생산 비중(%) : ('07) 34.9→('08) 45→('09) 58.2→('10) 64.2→ ('11.1Q) 63.1

2) 부분품 포함 수치

휴대폰 수출 추이

(단위 : 억 달러, % : 전년동기 대비)

| 구분 | '10.4 | 5 | 6 | 7 | 8 | 9 | 10 | 11 | 12 | '11.1 | 2 | 3 | 4 | 5 | 6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휴대폰 (부분품 포함) | 17.6 | 17.6 | 18.8 | 18.9 | 18.8 | 21.1 | 26.5 | 26.8 | 22.4 | 23.8 | 19.8 | 21.7 | 23.2 | 24.4 | 22.2 |
| | △27.9 | △29.4 | △25.0 | △27.7 | △17.6 | △16.1 | 2.9 | 8.9 | 21.7 | 11.9 | 5.6 | 5.8 | 31.9 | 38.9 | 17.9 |
| 스마트폰 | 2 | 3 | 5 | 5.4 | 6.2 | 8.3 | 10.8 | 11.8 | 10.2 | 9.5 | 9.2 | 8.2 | 12.2 | 12.5 | 8.2 |
| | 49.7 | 134.3 | 368.9 | 376 | 378.1 | 560 | 268.1 | 240.5 | 349.2 | 452.8 | 396.5 | 260 | 517.7 | 323.4 | 62.3 |
| 피쳐폰 | 8.7 | 6.9 | 7 | 5.8 | 4.7 | 4.3 | 7 | 6.7 | 5.1 | 4.9 | 3.9 | 4.3 | 3.2 | 3.7 | 5.4 |
| | △41.3 | △56.3 | △55.9 | △60.8 | △59.6 | △66.7 | △45.0 | △45.3 | △40.2 | △47.4 | △56.8 | △57.0 | △63.4 | △45.6 | △22.2 |
| 부분품 | 6.9 | 7.8 | 6.8 | 7.7 | 7.8 | 8.5 | 8.8 | 8.4 | 7.1 | 9.4 | 6.7 | 9.1 | 7.8 | 8.2 | 8.6 |
| | △16.0 | △1.7 | △17.1 | △24.7 | △20.5 | △22.4 | △13.9 | △6.5 | △6.7 | △7.8 | △14.7 | 11.7 | 13.2 | 5.7 | 26.1 |
| 전체 | 10. 2분기 | | | 3분기 | | | 4분기 | | | 11. 1분기 | | | 2분기 | | |
| 금액 | 54 | | | 58.8 | | | 75.7 | | | 65.3 | | | 69.8 | | |
| 증가율 | △27.4 | | | △20.6 | | | 10.0 | | | 8.1 | | | 29.3 |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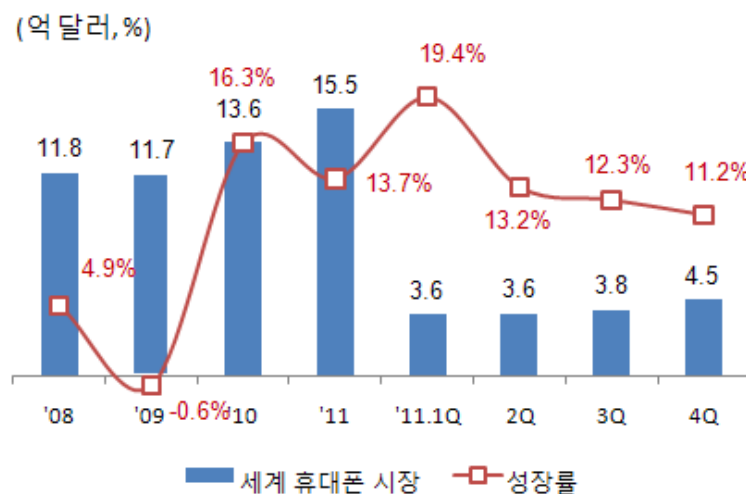
자료: 지식경제부

2. 전망 및 주요 이슈

□ 2011년 글로벌 휴대폰 시장, 전년 대비 13.7% 성장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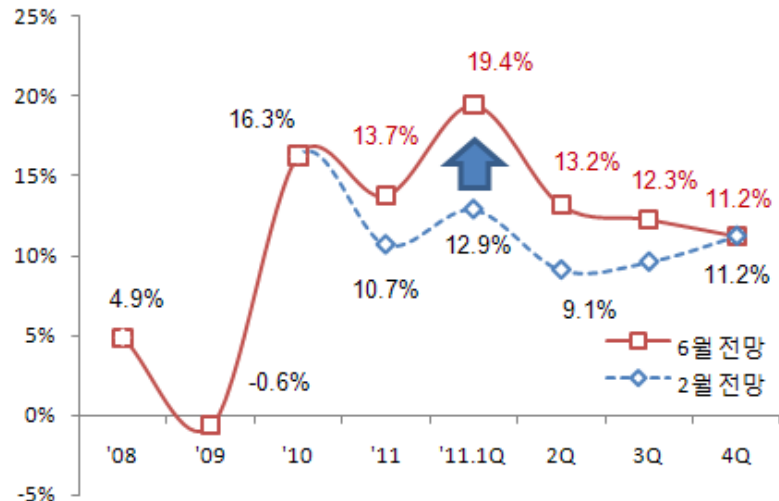
- 시장조사기관 SA(Strategy Analytics)는 '11년 세계 휴대폰 시장 성장률을 지난 2월 10.0%에서 10.7%로 조정한 데 이어 최근에는 13.7%(출하량 기준)로 상향 조정
- 최근 스마트폰의 높은 성장세를 반영한 결과

세계 휴대폰 시장 전망



자료: SA, 지식경제부

세계 휴대폰 시장 전망치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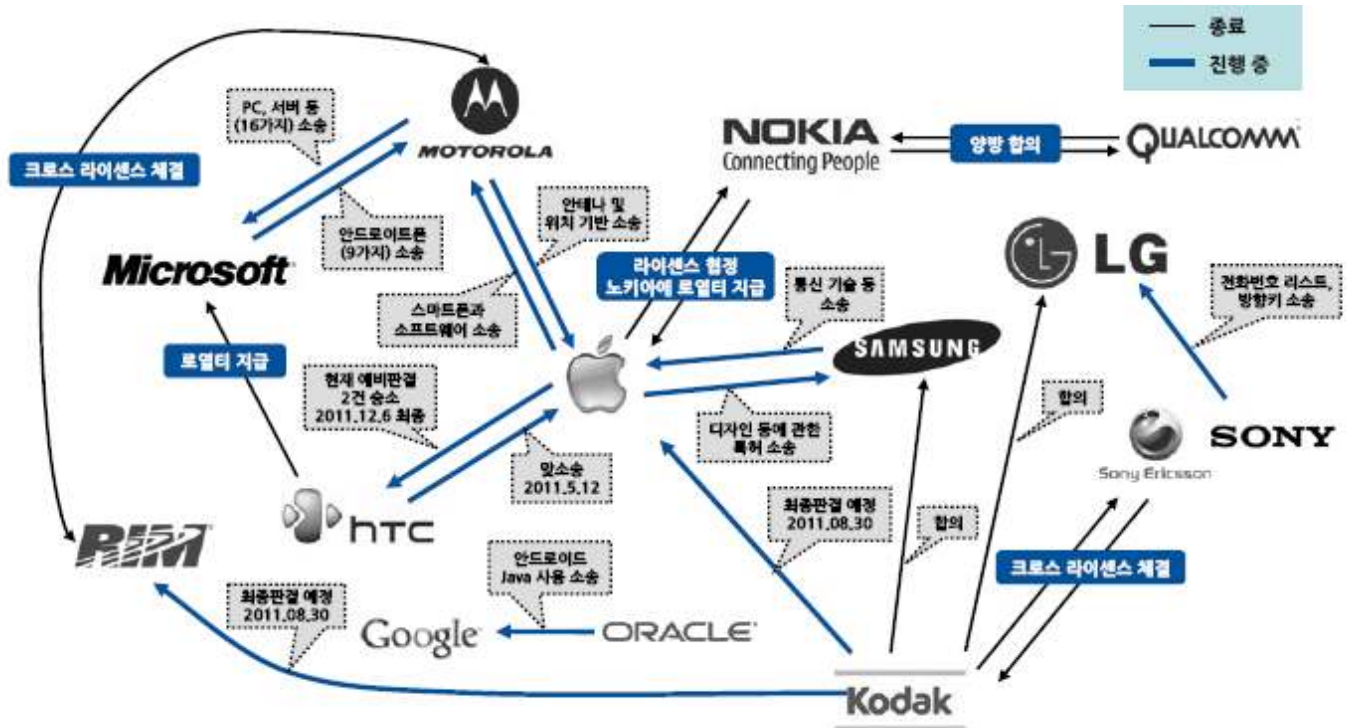


자료: SA, 지식경제부

□ 늘어나는 스마트폰 특허 소송, 한국 기업들에겐 약인가 독인가?

- 최근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특허 소송이 세계적으로 급증
- 지난 4월 애플은 "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가 자사의 아이폰의 디자인 등을 베꼈다"며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6월에는 국내 법원에도 제기
- 마이크로소프트는 대만 스마트폰 업체인 HTC에 대해 안드로이드폰에 탑재된 메일 송수신 기능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. 이에 대해 HTC는 제품 1대당 5달러의 특허료를 지불하기로 합의
-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삼성전자에도 비슷한 내용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제품 1대당 10달러 이상의 특허료 청구에 대한 협상 진행중
- 한편,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(ITC)는 지난 7월 15일 대만의 HTC가 애플의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며 수입금지 조치를 요청한 것에 대해 부분적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림.
- 이밖에도 오라클이 안드로이드에 사용된 자바 애플리케이션 기술을 사용한 데 대해 구글을 상대로 61억원 상당의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, 안드로이드 폰을 제조하는 회사에도 각각 제품 1개당 15~20달러의 특허료를 요구하고 있음.

세계 스마트폰 관련 특허 소송 진행 상황



자료: 언론 종합, 대우증권

- 최근 이와 같은 특허료 청구 및 관련 소송이 봇물처럼 증가한 것은 안드로이드 폰의 급성장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존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반격이라 할 수 있음.
-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OS(운영시스템)으로 어느 제조사든 누구나 무료로 가져다 쓸 수 있지만, 안드로이드가 타사의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 이를 이용해 휴대폰을 만든 제조사와 구글 모두에게 특허료를 요구 가능
- 이러한 공세의 선봉에 선 것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통적인 강자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
 -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질 경우 안드로이드폰 제조사는 휴대폰 1개당 20~30 달러의 보상을 해야 해, 제조사 전체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끼침.
- 한편, 애플의 경우는 이와는 별도로 HTC, 삼성전자 등 제조사를 상대로 디자인 유사성, 유저인터페이스(UI) 등에 대해 특허 소송을 진행중.
 - 컴퓨터 회사로 성장해온 애플은 디자인 및 OS 운영에 관계된 유저인터페이스

스(UI) 등에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, 휴대폰 통신 특허는 부족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음.

- 이렇게 늘어나는 특허 공방에 대해 **크로스 라이선싱을 통해 선두권 기업들의 입지가 더욱 두터워질 것**이란 전망이 있음.
 -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의 경우, 삼성전자가 통신기술에는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, 크로스 라이선싱을 통해 선두권 업체들끼리의 연대를 공고히 함으로써 후발 기업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.
 - 이럴 경우 선두권 업체인 삼성전자 등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으나, 팬택 등 후발기업들의 추격은 더 힘들어 질 수 있음.
 - 그러나 최근 애플은 통신업체 노텔의 기술 특허를 약 45억 달러(한화 4조8000억원) 정도에 인수했는데, 2009년 파산한 노텔의 6000개 이상의 통신 특허 가운데에는 특히 4G 롱텀에볼루션(LTE) 기술 표준과 관련된 핵심 기술이 많아 애플 역시 통신 특허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
- 반면, 마이크로소프트, 오라클 등 **소프트웨어사들의 특허 소송에 대해서는 특허료를 낮추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평가**
 - 국내 제조사들은 하드웨어에 대한 특허는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특허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, 요구하는 특허료를 고스란히 내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.
 - 특히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1대당 15달러 정도의 특허료를 요구중인 것으로 알려진 **마이크로소프트**의 경우, 자체 개발한 모바일 운영체제(OS)인 윈도우7의 한 카피 가격을 15달러 선에서 제시하고 있어 특허를 빌미로 윈도우 확대를 하려는 다중 포석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.
- 결론적으로 최근의 특허 공방으로 인해 **국내 제조사들의 특허 비용 증가라는 가능성은 존재하지만, 선발/후발 주자의 위치에 따라 긍정과 부정이 혼재하고 있음.**
 - 다만, 국내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특허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앞으로 이와 같은 특허 전쟁이 가속화될 경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음.